

『할배의 탄생 : 어르신과 낀대 사이,  
가난한 남성성의 시원을 찾아』

최현숙 저, 이매진, 2016

조은성\*

이 책은 우리네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아버지가 술 한 잔 드신 후 자식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 해주셨던 당신의 지난날의 과거. 누구나 한번쯤 아버지에게 들었을 법한 이야기들이다.

2000년대 이르러 구술 및 구술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 진행되었다. 특히 역사학계에서는 '신문화사'로 명명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연구이론 및 방법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기왕의 정치·사회구조사에서 다루고 있지 못한 보통사람들 및 민중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구술연구 및 사업 중 관주도형 구술사업은 대통령기록관의 역대 전직 대통령 관련 인사 구술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 국사편찬위원회의 구술사업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지난 10여 년 동안 구술사업을 진행하였다. 『할배의 탄생』은 이러한 관주도형 구술연구가 아니라 개인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구술사 연구라고 볼 수 있다.<sup>1)</sup>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

1) 김귀옥은 '한국구술사 연구현황, 쟁점과 과제'(『사회와 역사』, 71, 340)를 통해, 구술사 연구에 대한 미래를 조망하면서 향후 관주도형과 개인 및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던 연구라는 두 유형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30대 초반부터 사회운동에 참여하였고, 2000년 이후로는 진보정당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04년 47살의 나이에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 하면서 이혼하고 그 뒤 2008년 총선에서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낙선하였다. 그 뒤 진보정당 운동에서 독거노인을 돌보는 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일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그 계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08년 즈음해서부터 진보정치들이 궤멸하기 시작했어요. 정치노선 차이로 인한 내부갈등도 심해지고. 내가 그때 52살이었는데, 내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두리번거리다가 요양보호사를 선택하게 됐지요.”<sup>2)</sup>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수자들 즉 노인들에 대한 구술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저자는 『할배의 탄생』 이전 2013년에는 80-90대 여성들의 구술 생애사를 수록한 『천당하고 지옥이 그만큼 칭하가 날라나』를 펴내었고, 2014년에는 50-70대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인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다시 가느다란 길이 나왔어』를 출간하였다.

저자 최현숙은 김용술과 이영식이란 가난한 두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가난한 노인의 삶을 관찰하였다. 구술생애사 측면에서 두 노인이 태어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에 대해 구술하였다. 책에는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김용술은 두 차례, 이영식은 네 번 이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저자는 50대 여성으로서 70대 두 노인의 인터뷰가 “매혹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면, 다른 인터뷰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위험한 일을 즐기기 위한 방법은 ‘깨지는 김에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구술채록을 하는 데 있어서 라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녀는 성과 세대의 차이로 인해 라포를 형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어려움은 인터뷰 중간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 약간의 언쟁을 보면 단편적으로 드러나 있다.

---

2) 검색일 2017.1.2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0993.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0993.html)

책은 서문, 김용술 구술, 이영식 구술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구술은 마지막에 개인사(김용술, 이영식)에 대한 연표와 저자의 구술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 있다. 구술생애사의 특징으로 인해서 저자는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개인의 일대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구술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된 지역과 사건에 관한 설명을 참조할 수 있도록 신문 등 자료가 배치되어 있다.

### 김용술 “나는 잡초야, 어떤 구멍이에 떨어져도 악착같이 다시 일어나”

김용술의 구술은 시간 순으로 되어 있다. 자신의 전체 생애를 뒤돌아보듯이 저자에게 이야기해준다. 그의 생애 전부 살피볼 수는 없고 몇 가지 특징되는 지점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김용술은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에서 태어나 얼마 후 군산으로 이사를 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속초시에 거주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밝히는 것처럼 “역마살” 때문에 속초, 춘천, 서울, 인천, 안성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하게 된 것은 경제적 이유였다. 양복점, 야채유통업, 음식점, 세탁소, 택시기사 등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실패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은 김용술이 스스로 “잡초”라 부를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잦은 지역이동은 자연스레 가족과 멀어지고 이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혼을 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아내의 외도였지만 김용술은 그 역시도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을 한다. 또한 그는 아내에게 현재까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식들에게는 유년기를 유복하게 보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양복점을 하는 당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다. 그 뒤 이혼을 하면서 자식들과 멀어졌고 50대까지 자식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다시 만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한국사회에서 가장의 모습

이다. 즉 젊은 시절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족과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결국 노년에 이르러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된 현 시대의 가장을 대변한다.

김용술의 구술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삶에 대한 다른 특징은 여성과 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는 “성욕이나 섹스 이야기를 천박하다고 욕하는 건, 다 위선이야”라고 이야기 하면서 여성, 성관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관념을 표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인지하고 있는 여성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 이영식 “나는 가난하고 마누라도 자식도 없어요”

이영식은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나서 큰집에서 유년기를 지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상경하여 다방 주방에서 일하고, 성남 모피공장을 다녔고, 군대 전역 후 목수 일을 배워 전국각지를 떠돌아 다녔다. 이영식도 김용술과 유사하게 한 지역에서 정착하지 못하였다. 직업적·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고향에서 떠났던 것이다.

이영식과 김용술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생활을 가졌던 공통점 이외에 모두 군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요즘 것들은 힘든 것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군대에서 사고나 자살은 요즘 애들이 나약해서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이영식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는데 그 계기는 자존심과 호기심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군대에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당시 친구들과 ‘남자들 사이’에서 군대 이야기가 멋있어 보여 입대하였고 한다. 하지만 월남 파병 이후 “어디 있어도 봉 떠 있는 느낌이고, 돈 버는 거도 사는 것도 다 쓸데없는 짓인 거 같고, 사는게 아무 의미도 없고”라고 표현하듯 후유증으로 인해 노숙자 생활을 하는 등 방황하는 삶을

한동안 살았다고 자백한다. 그는 참전 때문에 잃은 게 더 많았다면서 “전쟁터에서는 죽음이 너무 흔하게 널려 있어요. 특히 처음 폭격을 당하고 나서는 정말 무섭고 불안했어요. 죽으면 죽지 하고 간 건데, 실제로 겪으니깐 그게 아닌 거지요.”라며 월남전을 회상한다.

그리고 이영식은 결혼을 하지 못하였다. 스스로 결혼 하지 못한 이유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 신 것, 새어머니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점,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혼 하지 못한 자신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저자의 소수자의 대한 시각은 두 노인의 구술을 해석하는 데도 역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자는 『할배의 탄생』의 주인공인 두 노인은 ‘정상의 성 규범’의 바깥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특히 결혼과 성에 대한 두 노인의 가치관은 정상에서 밀려나 있다고 본다. 이렇듯 두 노인의 수많은 이야기 중 저자가 ‘성, 결혼, 가부장제’에 주목하는 것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죄파,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이혼녀, 독거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자는 가난한 남성노인의 시원에 대해서는 일간지 인터뷰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엔 자기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가질 기회가 드물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모방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그 잣대로 세상을 보죠.”라고 말하였다. 즉 가난한 남성노인들은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 위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자신들의 의식은 그들과 같다고 인식한다고 한다. 그런데 동세대의 배운 사람, 권력자는 대개 보수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을 따라간다고 판단하였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저자의 해석에 대해 본인은 몇 가지 비판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저자는 소수자 시각 정확하게는 페미니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서문에서 자신이 소수자임을 밝히는 것은 자신의 객관

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두 노인에 대한 해석은 전혀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아 보인다. 물론 페미니즘 시각으로 정상 규범에서 벗어난 두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이 그것만으로 해석한다면, 저자가 비판하고 있는 정상성이라는 “남성, 가부장제”라고 불리는 거대담론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이 책의 부재가 ‘가난한 남성성의 시원을 찾아’이지만 동세대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진 자’에게 자신을 투영하여 보수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 역시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다. 구술하였던 두 노인은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말자” 등 자기정체성 및 삶에 대한 모토가 강하였던 분들이었다. 또한 두 노인은 “정상”에 포함되는 동세대의 타인, 보통사람들과 비교를 하였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가진 자들과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비교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저자는 구술채록의 자체 정보에 대해 불친절하다. 구술을 하게 된 계기, 날짜, 구술시간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정리되지 않아 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 구술에 대한 정보는 해당 구술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고, 독자와 이용자들에게 구술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피구술자의 인터뷰 내용만을 삽입한 것은 불친절하다.

세 번째 구술에 대한 맥락정보라 부를 수 있는 신문기사 등의 자료가 자의적 판단으로 삽입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김용술의 구술 중 “양색시”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저자는 “주한 미군의 범죄 성격과 배경”, “윤금이 살해 사건과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한 자료를 넣었다. 김용술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자는 무관한 주한미군 성범죄에 대한 자료를 삽입하였다. 물론 동두천에 있는 집창촌이 주한미군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료를 삽입하는 것은 독자로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우리 사회 역사와 기록들은 모두 ‘배운 사람’,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거나 그들의 관점에서 정리된 것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소

외된 존재들을 만나서, 발언되지 못했던 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 우리 역사의 한 영역으로 공유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위의 글은 저자 최현숙이 일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구술을 하게 된 계기를 말한 것이다. 그녀의 말은 기록학계에서도 충분히 공감할만한 내용이다.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기관의 설명책임성 때문만 아니다. 전문요원은 국민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록물을 관리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굳건히 만들게 할 수 있다. 또한 역사 속에서 기억·기록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와 목소리가 없던 사람들의 기록물을 보존함으로써 후대에 보통사람, 민중들이 어떻게 살았었나를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거창하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기록하자. 그것이 곧 시민, 국민, 국가를 기록하는 전문요원과 아키비스트로서 가장 먼저해야할 일이다.